

녹색복원 프로젝트... 지역 회생 탈출구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생태계 살리면서 지역사회에 생태관광·생태경제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 거둬야”

상상 유례 없는 지구촌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녹색복원’ 프로젝트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면서 생태경계도 선순환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9백만㎡에 달하는 쓰레기 매립장인 프레스 힐스를 복원시켜 생태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모시킨 미국 뉴욕시나, 폐채석장을 식물원과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영국 에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서울 난지도를 대규모 4개의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2월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도 훼손·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녹색복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녹색복원은 국토공간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질적·양적으로 회복시켜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2년 1월 시행)을 통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국가 예산지원사업 추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 독려하고 있으나 큰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 측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단기간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생태, 환경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시화를 증가로 지난 30년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은 2~3배 증가했으나 산림과 농경지는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 역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의 사업추진으로 습지 등 자연지역은 감소추세다.

전북연구원은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사이 전

북의 산림과 농업지역은 약 2.34% 감소한 반면 시가지나 건조지역은 4.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간 전북에서 생태복원사업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공유지에 국한된 소규모 복원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사업 내용도 생물종 서식지 조성 등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관 중심의 사업은 사업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전북연구원은 이에 따라 전북에서 향후에 추진될 녹색복원 사업은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협의의 생태복원을 지양하고 광의의 녹색복원, 즉 생태·환경자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복원 과제로 소규모 마을단위의 점적 복원, 지역간 연계 등을 위한

산적 복원, 대규모의 광역적이고 융합적인 면적 복원이라는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중양부처-도-시군이 함께하는 설명회 개최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유지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 △복원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활동을 생태계 서비스지불제로 지원 △지역 기업 참여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북 녹색복원 엑스포 행사 개최 △지역 녹색복원 사업 정부 예산 확대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천정운 연구위원은 “익산 왕궁정착 농원처럼 대규모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녹색복원 선도과제 추진으로 생태계를 살리면서 생태관광과 생태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며, “좀더 과감한 시도로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대상’

‘아동정책 시행계획·아동학대 대응·아동보호체계’ 3관왕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보호체계 운영, 시군구 업무지원,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평가에서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 운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시군구 분야에서도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 최초로 시도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시군의 인프라를 세심히 분석하여 아동보호 수요가 높은 격주 지역에는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시군 아동보호팀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양육 상황 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했으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소진 예방 사업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시행된 ‘위험기입신보호출산법’에 적극 대응하여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지원과 출생 신생아의 긴급 보호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아동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아동정책 분야에서 3관왕(아동보호체계: 대상 △아동학대 대응평가: 최우수상 △아동정책 시행계획: 우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이는 보호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쓴 결과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 위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첫 걸음 뗐다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 공식 출범 경제부지사 등 20명 구성 계획 수립 위한 전문 코칭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전북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및 도 관련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10명과 관련분야 전문가인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 첫 회의를 열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 전북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및 도 관련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10명과 관련분야 전문가인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심의회가 개최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수립·조정·변경·평가 등 주요 사항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핵심전략 수립 등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코칭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함께 부위원장을 수행할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과 기본계획 핵심전략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착수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종합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기본계획, 추진전략 등 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주민의 의견반영 등 종합계획주요 사항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종합계획 검토를 통해 종합계획이 충실히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 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중지를 모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켜 전북자치도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감사관과 함께 청렴도정 ‘앞장’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 개최... 제도 활성화 위한 의견 공유 등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민감사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민감사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교류와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024년 감사위원회 주요 성과 보고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공유 △도민감사관증 전달 △운영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감사관들의 시군 종합감사 및 청렴소통 추진단 활동을 공유하며 내년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찰관’으로 출발해, 2013년 ‘도민감사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도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올해 6기를 맞은 도민감사관 56명은 공무원의 위법·부당사행 제로부터 생활 속 불편 신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군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하며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제보와 감사 현장조사에서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도민감사관증 전달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기관 운영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동반자로서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호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